

S-Oil, 사랑의 떡국 나누기 봉사

S-Oil은 설날을 맞아 1월22일 사랑의 실천 국민운동 본부와 함께 서울시 영등포 광야교회의 노숙자 무료 급식센터에서 <S-Oil과 함께하는 사랑의 떡국 나누기>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아흐메드 에이 수베이 CEO를 비롯한 S-Oil 사회봉사단 60여명은 끼니를 거르는 노숙자 100여명에게 떡국을 직접 만들어 제공하고 영등포 일대 쪽방 약 500세대를 찾아가 떡국떡, 소고기, 과일, 라면 등 식료품을 전달했다.



수베이 CEO는 “어려운 이웃들이 한국 전통 명절인 설날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임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이번 봉사활동을 준비했다”며, “경제난 속에서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S-Oil은 전국 각 지역별로 조직된 사회봉사단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떡국·송편나누기>, 지역 저소득 노인 대상 경로잔치,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희망나눔캠프> 등 직접적이고 다양한 봉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9/01/23>